『이중언어학』 제52호(2013.6.30). 二重言語學會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농인과 외국인의 한국어 오류 분석*

서 광 진

Abstract

Seo, Kwangjin. 2013. 6. 30. **Error Analysis of Korean used by The deaf and Foreigners as Korean Learners.** *Bilingual Research 52*, 221-24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necessity of language of the deaf as a learner of korean language based on comparing errors of korean language of both the deaf and foreigners. To do this, the topik test of 271 deaf people and 27 foreigners who are studying korean in 2nd and 3rd level was carried out. The deaf got 16 points out of 35, foreigners 18 points. Errors of the test assumed an similar and distinctive aspect. Errors of Irregular conjugation were more than regular and Errors of many grammatical morphemes occurred from both the deaf and foreigners. But foreigners made a little errors in using postposition and tense, while the deaf made severe errors. Foreign learners made err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mother tongue. Likewise, the deaf made err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mother tongue, KSL(Korean Sign Language). It tells that the deaf are foreign korean learners in terms of language education.**(Chonbuk University)**

【Key words】 농인(the deaf), 오류(errors),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foreign korean learners),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

* 이 논문은 2013년 4월 6일에 개최한 '이중언어학회 제29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신 토론자 분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청각 장애인인 농인들은 일반 청인들(한국어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청각 언어인 말에 해당하는 수화라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화는 손동작-시각 체계를 사용한다. 반면 한국어의 언어 형식은 음성-청각을 이용하는 구어이다.[1] 흔히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음성-청각 체계를 가진 대등한 구어를 기반으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인이면서 한국어와 전혀 다른 한국수화(KSL, Korean Sign Language)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 농인들을 국어 학습자로 볼 것인지, 한국어 학습자로 볼 것인지의 판단의 문제가 생긴다. 농인들을 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어 학습자로 볼 경우, 농인들의 부족한 국어 능력은 언어적이거나 인지적인 부족함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의 연구 경향처럼 농인들을 치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농인을 한국어 학습자로 본다면 농인을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문화권의 화자로 인식하게 되고 농인의 언어 교육 역시 이중언어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수화에 기반한 농인들의 한국어 사용 오류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농인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

1) 수화의 언어형식은 기본적으로 손동작-시각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발화자의 동작과 표정이 또 다른 의미 기호로 작용한다. 한국어 구어에서 동작이나 표정은 말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수화에서는 독립된 의미를 창출하기 때문에 수화는 손동작인 수지기호와 표정이나 동작인 비수지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농인 271명[2]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27명이다. 농인 271명은 한국어로 말하거나 들을 수 없으며 수화를 배운 후에 뒤늦게 한국어로 읽기와 쓰기를 배운 농인들이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4.8%), 20~29세(6.6%), 30~39세(15.1%), 40~49세(32.1%), 50~59세(25.8%), 60세 이상(15.5%)의 분포를 보인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101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67명(24.7%), 초등학교 졸업 53명(19.6%), 학교 무 23명(8.5%), 대학 이상 22명(8.1%)의 순이었다. 학력과 연령은 한국어 평가 결과와 비례하였다.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어 평가 결과가 더 좋았다. 연령에서는 20~29세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비교를 고려하여 농인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일반 농인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는 하루에 4시간씩 17주~25주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2~3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적은 중국(11명), 방글라데시(3명) 몽골(2명), 스페인(2명), 미국(1명), 불가리아(1명), 일본(1명), 태국(1명), 카메룬(1명), 가나(1명), 필리핀(1명), 러시아(1명), 벨라루스(1명)이다. 한국어 학습자 27명은 농인의 한국어 평가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국가별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국적을 다양하게 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자 하였다. 모든 L2 학습자들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

2)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윤석민 외,2013. 국립국어원)에서 271명의 피험자를 조사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그 결과를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든지 또는 교실에서 학습하든지 그리고 그들의 L1에 관계없이 생략 오류, 과잉일반화 오류, 그리고 전이 오류 등을 범한다(Rod Ellis, 1997:29~30). 이처럼, L1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L2 습득 양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음성-청각 체계를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평가 기준

2.1. 연구 방법

L2 습득을 조사하는 중요한 방법은 학습자 언어 표본을 수집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학습자 언어를 기술하는 것의 한 방법은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종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오류의 유형과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농인과 외국인의 한국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난이도를 고려하여 TOPIK 시험 문제 형식의 35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문제의 형식은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법과 표현을 아울러 물어보며 주관식 쓰기의 문제에 비중을 두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성적과 문항별 득점수 및 주관식 답안의 오류 유형에 따라 비교하여 농인 한국어 학습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농인들은 음성-청각적 언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가리키는 농인들의 한국어는 읽기와 쓰기에서만 사용하는 문어에 국한하였다.[3)]

농인의 한국어능력 평가지는 다음의 6가지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3) 본 논문에서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자료를 통해 농인들이 한국어의 기본적 어휘와 문법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사용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⑴ 난이도를 고려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의 형식을 참조한다.
⑵ 농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어사용 능력에 해당되는 4가지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중에서 읽기와 쓰기 영역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⑶ 농인들이 평가 문제의 형식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문항수를 최소화한다.
⑷ 농인들이 시각 자료에 익숙하므로 시각자료를 활용한다.
⑸ 좀 더 많은 분석 결과물을 얻기 위해 주관식 문제의 비중을 높게 한다.
⑹ 문제 유형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난이도의 균형을 맞춘다.

위 6가지 기준에 따라 작성한 한국어 능력 평가지는 총 35문항으로 하였으며 각 문항의 구체적인 출제 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농인의 국어능력 평가 문제 유형별 출제 방향
(한국어 평가지, 부록 참조)

문제번호	문제 내용	문제형태(난이도)
(1~3)	그림 보고 명사 어휘 쓰기	주관식(하,중)
(4~6)	그림 보고 동사와 그 활용형 쓰기	주관식(하,중,상)
(7~10)	문장을 읽고 어울리는 조사 쓰기	주관식(하)
(11~12)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 만들기	주관식(하,중)
(13~15)	용언의 활용형 쓰기	주관식(하)
(16~17)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의문사 고르기	객관식(하)
(18~20)	시제에 따른 문장 쓰기	주관식(하)
(21~22)	문장종결형 고르기	객관식(하,중)
(23~25)	연결어미 고르기	객관식(하,중)
(26~28)	문맥에 맞는 표현 고르기	객관식(하,중,상)
(29~30)	간접인용 표현으로 바꿔 쓰기	주관식(하,중)
(31~32)	문맥에 어울리는 문장 쓰기	주관식(중,상)
(33)	텍스트의 문맥에 어울리는 문장 쓰기	주관식(중)
(34~35)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대답하기	객관식(상)

2.2.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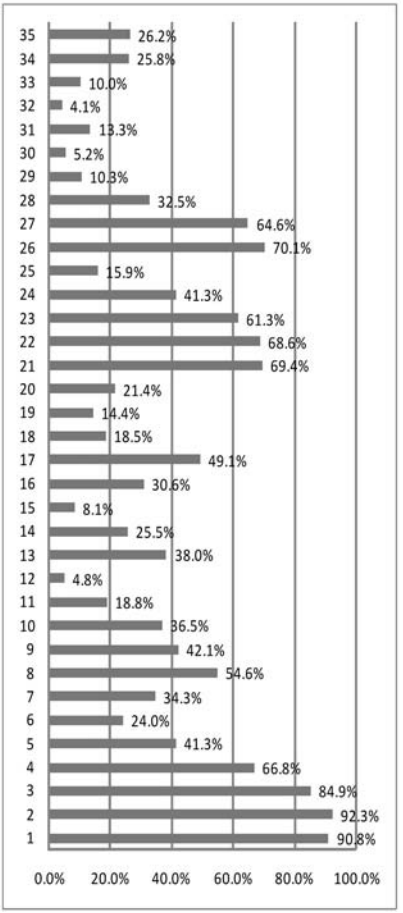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답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틀린 대답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맞춤법 상의 오류는 문장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답으로 간주하였고, 그림을 보고 정확한 어휘 하나만을 써야 하는 경우에만 철자 오류를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시제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조사나 다른 문법 사항에서 오류가 있어도 시제에 관련된 표현이 정확하다면 이는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세부 오답 처리 사항은 각 문항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덧붙이도록 하겠다.

3. 한국어 평가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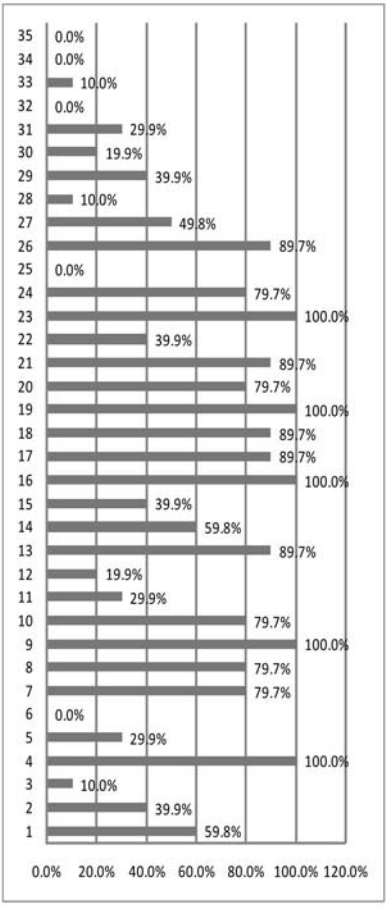
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 271명의 농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능력 평가의 전체점수 분포는 0~9점이 92명(34%)를 차지했고 10~14점이 77명(29%), 15~19점이 46명(17%), 20~24점이 33명(12%), 25~29점이 14명(5%), 30~35점이 8명(3%)을 차지했다. 이를 더한 전체 평균은 16점이었다. 반면에, 2~3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들의 평균 점수는 18점이었다.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수준이 외국인 대상 한국어 시험의 초·중급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농인의 국어능력 평가 점수가 무척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무응답이나 문제 형태에 익숙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은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철저하게 한국어 텍스트 환경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예상 밖의 점수이다.

35문제의 항목별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농인 점수 분포



<표 3> 외국인 학습자 점수 분포



1~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어휘를 쓰는 문제인데 농인의 대답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낮은 정답률과 대조된다. 7~10번은 조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외국인들의 정답률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14~15번 문제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쓰는 문제인데, 외국인 학습자와 농인 모두 낮은 정답률을 보이지만 농인의 경우 무

척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답률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어울리는 시제 표현을 쓰는 18~20번 문제이다. 명확한 시간 부사어를 문장 속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인들은 정확한 시제 표현을 사용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농인의 한국어 평가지 내용별로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농인의 한국어 평가지 결과 종합

어휘	명사 어휘	· 89%의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임.
	동사 어휘	· 44%로 명사보다 정답률이 2배정도 낮음.
문법1	조사	· 초급수준의 난이도였는데도 정답률이 42%에 불과함. · 목적격조사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부사격조사의 정답률이 가장 낮음. · 조사를 생략하지 말아야할 곳에서도 생략이 빈번이 일어남.
	용언의 활용	· 규칙 용언은 38%, 불규칙 용언은 17%의 정답률을 보임. · ‘ㄷ’불규칙(듣다-들어요)의 정답률은 26%, ‘ㅅ’불규칙(낫다-나아요)은 8%의 정답률을 보임.
	의문사	· 명사 앞에서 관형사‘무슨’을 써야할 자리에 대명사 ‘무엇’을 쓰는 경우가 많음.
	시제	· 시제의 정답률은 18%로 무척 낮음. · 과거시제(21%), 현재시제(18%), 미래시제(14%)의 순임.
문법2	서법	·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응대로써의 서법 형태의 정답률은 높음. · 주어의 인칭이나 상대높임법에 따른 서법의 쓰임에서는 많은 오류가 나타남.
	문장 구성	· 단문 작성은 19%, 복문은 5%의 정답률은 보임. ·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 때 조사의 오류가 빈번함. · 복문의 경우, 적절한 연결 어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간접 인용	· 정답률이 7%정도에 불과함. ·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의 문법적 정확도가 떨어짐.
	연결 어미	· ‘-고’(61%), ‘-(으)면’(41%), ‘-나’(16%)의 순으로 정답률을 보임.

화용	·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을 찾는 경우 56%의 높은 정답률을 보임. · 문맥에 맞게 글을 써야하는 경우 10%의 낮은 정답률을 보임.

위 표에서 정리된 사실을 기준으로 한국어 평가지 내용별 양상을 살펴보겠다.

3.1. 어휘

1~3번은 세 개의 그림인 우산, 나비, 열쇠/자물쇠를 보여주고 명사 어휘를 쓰는 문제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우산’과 ‘열쇠’를 철자의 혼동으로 ‘우선/오선’, ‘열쉬/열세’라고 써서 틀린 경우가 많았다. 농인의 대답에서는 명사 어휘의 철자 오류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4~6번은 세 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적절한 동사 어휘를 쓰는 문제이다. 전체 어휘 6문제 중 4번 문제만 외국인 학습자의 정답률이 높았는데, 다가오는 버스를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그림을 보고 20명은 ‘기다려요’를 7명은 ‘타요’를 써서 모두 맞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농인의 경우도 70% 가까이 정답을 썼는데, ‘기다려요’라는 대답보다 ‘타요’라는 대답이 더 많았다. 같은 장면을 언어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인과 외국인의 차이라기보다는 농인과 청인의 인식차이로 보인다. 뒤를 이어 ‘오다’는 대답과 ‘정류장’이라는 대답이 있었다. 6번의 노를 ‘젓다’는 대답은 농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혀 쓰지 못했다. 외국인 조사 대상자가 2~3급 수준의 학습자였기에 ‘노를 젓다’와 같은 표현은 학습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3.2. 문법1

문법1에서는 조사와 용언의 활용, 의문사, 시제 문제를 살펴보았다. 7~10번 문제는 빈칸에 적절한 조사를 쓰는 문제이다. 농인의 경우 조사 문제의 정답률이 아주 낮았는데 특히 7번 문제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1) ㄱ. 저는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ㄴ.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ㄷ. 저는 *친구가 이야기해요.
ㄹ. 저는 *친구를 이야기해요.

(1ㄱ,ㄴ)은 정답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답을 쓴 경우, 외국인은 18명이 (1ㄱ)을, 7명이 (1ㄴ)을 썼다. 농인들은 '하고/와/랑'와 '에게/한테'라는 대답이 거의 비슷했다. (1ㄷ,ㄹ)은 대부분의 오답의 예이다. 외국인들은 2명만이 오답을 썼지만 농인의 경우 반 이상이 이와 같이 적었다. Schow& Nerbonne(1996)에서는 대부분의 농인들이 명사나 동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반면 문법적 기능어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법 형태소의 사용을 잘못하거나 문장의 주요 요소를 생략하고 낱말의 순서가 잘못된 문장을 산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문법 형태소가 발달하지 않은 농인들의 모국어인 수화의 영향으로 봐야할 것이다.[4)]

13~15번은 용언의 활용형을 쓰는 문제이다. 13번은 규칙 활용형 14번은 'ㄷ'불규칙 활용, 15번은 'ㅅ'불규칙 활용을 쓰는 문제이다. 농인과 외국인 모두 규칙보다 불규칙의 오류가 많았다.

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모어인 중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서 많은 오류를 보인다. 표의어인 중국어는 단어의 나열 위주로 문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수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⑵ ㄱ. 책을 *읽어해요.
ㄴ. 음악을 *듣어요/*들러요.
ㄷ. 이제는 다 *낫어요.

(2ㄱ)은 접미사 ‘-하다’를 지나치게 생산적으로 결합해서 틀리는 경우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전형적인 과잉일반화 오류로 많이 보이는 예이다. 그런데, 농인의 대답에서도 이런 예가 발견되었다. L1이나 L2에서 모두 과거시제의 지나친 사용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현상인 규칙 확대의 모습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하다’가 ‘읽어하다’처럼 지나치게 확대 결합하는 모습은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농인에게 음성-청각 언어인 한국어가 외국어로 인식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ㄴ)의 ‘듣어요’는 농인들의 대답에서만 보이고, ‘들러요’는 외국인의 대답에서만 보이는 오류이다.[5] (2ㄷ)에서는 농인과 외국인 모두 ‘ㅅ’불규칙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16~17번은 의문사를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이다. 16번의 경우 외국인들은 전부 정답을 썼지만 농인들은 30%만이 정답을 썼다.

⑶ ㄱ. *언제/*무엇 계절을 좋아해요?
ㄴ. 그 사람은 *어느/*무슨 사람이에요?

농인들의 언어인 수화에서는 ‘무슨’, ‘무엇’, ‘어느’에 해당하는 표현이 오른손 검지를 세워 흔드는 동작 하나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이 관형사 형태의 사용에서 혼동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수화에서의 자유로운 어순도 관형사 형태를 습득하는 데 방해를 준다고 보인다. 수화에

5) 이런 현상은 구어와 시각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외국인은 청각으로 ‘들어요’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반면, 농인들은 한국어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에서 눈으로 본 형태의 혼동이 생기게 되어 ‘듣어요’라는 잘못된 형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는 “계절 무엇 좋다?”, “무엇 계절 좋다?”, “계절 좋다 무엇?” 등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⑶과 같은 오류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간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오류를 보이는 양상과 같다는 점에서 농인을 외국인과 동일한 한국어 학습자로 봐야 할 것이다.

18~20번은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외국인의 경우와 농인의 경우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시제 표현이다. 2~3급 수준의 외국인들이 거의 전부 올바른 시제 표현을 쓴 것과 달리 농인들은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 예는 다음 ⑷번과 같다.

⑷ ㄱ. *저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ㄴ. *저는 내일 친구를 만났습니다.
ㄷ. *저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앞의 <표 2>와 <표 3>의 비교에서 농인의 문제 정답률과 외국인의 정답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18~20번 문제에 해당하는 올바른 시제표현 쓰기였다. 농인들이 시제 사용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는 이유는 수화에 시제를 표현하는 문법의 형태적 범주가 없기 때문이다.[6] 그렇다고 수화에서 시간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명사의 도움으로 문장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수화를 이용한 농인들의 대화에서 한국어의 시제 문법 표지인 ‘-었’, ‘-는’, ‘-(으)ㄹ’ 등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수화와 한국어의 이런 차이는 영어와 한국어의 수일치에서 보이는 차이와 유

6) 한국어와의 대응에서 한국 수화에 형태적으로 시제문법 표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수화라는 독특한 언어에서 시제문법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화의 문법 체계에서 시제에 대한 다른 정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추정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지만 향후 세부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하다. 한국어에서 수일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단수와 복수를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농인들이 시제 표현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이 시간을 구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인들이 “사람이 많다.”의 문장을 허용하는 것처럼 농인들은 “어제 공부하다”의 문장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3.3. 문법2

문법2에서는 서법과 문장 구성, 간접 인용 표현, 연결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는 상대방의 발화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는 서법 형태를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기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정도별로 비교해 보고자 제시하였다.

⑸ 가: 내일 같이 산에 갈까요?
나: 좋아요. 같이 산에 가겠습니다/갑시다/*갈 거예요.

21번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보면 1번 대답인 ‘가겠습니다’라는 응답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2번 ‘갑시다’라는 대답이 62명, 4번 ‘갈 거예요’라는 대답이 54명 순이었다. 그리고 명확한 오답 형태인 ‘갑니다’라는 응답이 37명으로 가장 낮았다. ‘갈 거예요’라고 응답한 54명은 주어 인칭에 따른 서법 표현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에서 상대방의 명령이나 요청에 응대할 경우에 1인칭 화자의 대답으로 ‘갈 거예요’는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습득과 학습의 단계에서 의미 범주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화에 기반을 둔 농인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한국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22명이 '갑시다'를, 3명이 '가겠습니다'를, 2명이 '갈 거예요'를 선택했다. 외국인들의 경우 초급 단계에서는 오류를 많이 보이나, 중급 단계로 접어들면서부터 인칭에 따른 서법 표현의 오류 정도가 확연히 줄어든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초급 단계에서 보이는 오류의 양상은 농인과 비슷하지만 중급 단계로 진행될수록 농인들과 차이를 보인다. 오류의 양상에서의 유사점은 농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차이점은 외국인의 모국어는 한국어와 같은 음성-청각 언어이지만 농인의 모국어는 이와 다른 체계를 가진 손동작-시각 언어라는 것을 보여준다. 농인은 외국인처럼 한국어 학습자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종류의 학습자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11~12번은 제시된 어휘 4개를 자유롭게 연결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쓰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의 정답률은 농인과 외국인 모두 아주 낮게 나타났다. 11번은 단문, 12번은 복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복문을 만드는 데에서 더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⑹ ㄱ. *민수를 아버지께 백화점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ㄴ. *민수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은 백화점에서 갔다 왔어요.
ㄷ. *옷을 젖어서 새 옷을 갈아입었어요.
ㄹ. *옷을 젖으니까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6ㄱ,ㄴ)은 문장에서 각각의 논항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경우로 대부분의 오류가 이와 같았다. (6ㄷ,ㄹ)은 농인과 외국인의 대답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80%이상이 '옷을 젖다', '새옷을 갈아입다'로 답을 적었다.[7]

7)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습득 초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모든 동사를 목적어를 수반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29~30번 문제는 보기에 정답의 예시를 보여준 후 문제를 보고 간접인용 표현으로 쓰라는 문제이다. 농인과 외국인 모두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특히 농인의 정답률은 7%에 불과했다.

⑺ ㄱ. *하영이는 사랑해요라고 했어요.
ㄴ. *하영아, 언제나 사랑해요.
ㄷ. *수영이는 저 좀 도와줘라고 했어요.
ㄹ. *수영는 저 좀 도와주고 했어요.

(7ㄱ)은 간접인용 표현이 아닌 직접인용 형태를 쓰고 있다. 또는 (7ㄴ)처럼 직접 본인의 대화체로 쓴 경우가 있었다. (7ㄷ,ㄹ)의 경우는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써야 하는데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라고'의 형태를 쓴 경우이다.

23~25번 문제는 연결어미의 올바른 형태를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이다. 각 문항별 대표적 오류는 아래 (8)과 같다.

⑻ ㄱ. *영화도 보니까 밥도 먹었어요.
ㄴ.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세요.
ㄷ. 형한테도 내일 같이 놀러 가자고 할까? *물어보느라고 안 갈 거야.

(8ㄱ)은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어요'가 바른 표현이다. 한국어 2~3급 수준의 외국인은 모두 다 정답을 선택했지만 농인은 61%만이 정답을 선택했다. (8ㄴ)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80%는 '약속이 있으면 먼저 가세요'라는 대답을 선택했지만 농인은 41%만이 정답을 선택했다. 그러나 25번 문항은 외국인은 정답을 선택한 사람이 전혀 없는 반면에 농인은 16%의 정답률을 보였다. 외국인의 경우 교실에서 학습한 한국어의 난이도에 비

례하여 결과가 확연히 달랐다. 교실에서 배우지 않은 표현에는 전혀 정답을 쓰지 못했다.

위의 예 25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의 예는 (8ㄷ)처럼 '물어보나마나' 대신에 '물어보느라고'를 선택한 경우이다. 부정적 결과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를 알고 뒤에 붙는 부정의 부사 '안' 과 어울려 쓰이는 (8ㄷ)의 예를 선택한 것이 오답을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L2 학습자들은 언어구조의 덩어리(공식화된 표현들)를 내재화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규칙(즉, 주어진 언어학적 특징이 특정 문맥에서 특정 기능으로 사용되는 지식)을 습득한다(Rod Ellis, 1997:18). (8ㄷ)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학습자가 '-느라고 안'이라는 덩어리 표현은 알지만 '-나마나 안'이라는 표현은 몰라서일 수 있다. 또는 앞선 질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다.

3.4. 화용

농인의 경우 화용적 상황에 맞는 문장 고르기 문항의 정답률을 보면 26번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70.1%로 가장 높았고, 27번 문제가 64.6%, 28번 문제가 32.5% 순이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26번 문제 90%, 27번 문제 50%, 28번 문제 10%의 정답률을 보였다. 대화 상황과 표현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정답률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농인과 외국인의 경우가 동일했다.

화용적 상황에 따른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28번처럼 난이도가 높은 질문에 대한 농인들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즉, 쉬운 조사나, 시제, 용언의 활용, 단어 연결하여 문장쓰기 등에서의 정답률보다 28번의 정답률이 높았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농인들이 문법적 정확도에서 부족한 결과를 보였을지라도 이것이 그들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류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어떤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은 때로는 어떤 구조를 초기에 정확하게 사용하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구조를 습득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Rod Ellis, 1997:33). 평가 결과에 대한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논의 및 결론

농인들의 시험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농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오류 양상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이는 오류 양상과 유사했다. 동사의 경우, 불규칙 활용의 정도가 심할수록 오류의 빈도가 높아졌고 조사나 어미의 쓰임과 어순 및 시제의 쓰임 등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다. 한편 외국인 학습자들이 보이는 오류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기도 하였다. 쉬운 조사나 시제 표현은 틀리는 반면, 어려운 대화체 구문의 경우 적절한 대답을 찾아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인의 TOPIK 득점은 외국인 학습자들보다 더 낮았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농아학교를 졸업한 농인들의 점수가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들보다 낮았다. 오류의 양상은 유사하지만 한국어 학습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한국 농인들은 한국어 습득을 가장 어려워하는 외국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농인의 한국어 평가 결과가 무척 나쁘게 나온 것은 농인의 언어인 수화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모국어는 음성-청각언어로서 한국어와 보편적으로 같은 속성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인들이 사용하

는 수화언어는 청각 언어 체계가 아닌 시각적 기호에만 의존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휘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듣어요'와 같은 오류를 보이거나, 여러 비슷한 어휘 목록을 하나의 어휘로 단순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문법형태소가 발달되지 않아 조사와 시제 등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수화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보이는 특수성으로 인해 농인들이 한국어 사용에서 외국인과 다른 형태의 오류를 보이지만 그 오류의 양상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인들은 청인들과 문화적으로는 공존하고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외국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인들에게도 한국어교육의 방법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외국어와 한국어의 대조분석은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가능하지만 농인들의 제1언어인 수화에 대해서는 언어학적으로나 대조 분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농인들의 한국어 오류의 원인을 명확히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수화와 한국어의 대조를 통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응범(2008), 농학생의 국어 문장 오류 및 그 원인 분석 연구, <한국수화연구> 제1집,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 pp.68-127.

김정남(2006),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 -시제 및 연결어미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32호, 이중언어학회. pp.115-138.

김태경(2009), 제1언어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국어교육연구> 제2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235-268.

윤석민 외(2013), 농인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국어원.

이다미(2004), 제2언어습득: 내재적 언어능력 때문인가, 상호작용 때문인가, <이중언어학> 제24호, 이중언어학회. pp.177-193.

이승연(2007),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판정 및 수정 기준 연구 -교사,비교사 집단 간 오류 판별 비교 실험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pp.189-213.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Rod Ellis(1997),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박경자.장미경.오은진 역 (2001), 제2언어습득, 박이정.
Schow, R.L., & Nerbonne, M.A.(1996), *Introduction to audiologic rehabilitation.* Boston, MA: Allyn & Bacon.
Stephen Crain & Diane Lillo-Martin(1999),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Theory and Language Acquisition*. 황규홍 역(2003), 언어이론과 언어습득, 한국문화사.

<부록, 한국어 평가지>

※【1~3】이것은 무엇입니까?

(안경) **1.**( ) **2.**( ) **3.**( )

※【4~6】지금 뭐 해요?

잠을 (자요) **4.** 버스를 ( )

5. 지갑을 ( ) **6.** 노를 ( )

※【7~10】다음 빈칸에 어울리는 말을 쓰세요.

<보기>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해요.

7. 저는 친구( ) 이야기해요.
8. 철수는 영희에게 편지( ) 써요.
9.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 일해요.
10. 동생이 언니( ) 키가 더 커요.

※【11~12】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세요.

(어제, 노래방, 춤, 노래)
어제 노래방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11. (민수, 아버지, 백화점, 선물)

_____

12. (옷, 젖다, 새옷, 갈아입다)

_____

※【13~15】 다음 밑줄에 어울리는 말을 쓰세요.

가: 날씨가 어때요?
나: 아주 **따뜻해요** .(따뜻하다)

13. 가: 지금 뭐 해요?
나: 책을 _____.(읽다)

14. 가: 지금 뭐 해요?
나: 음악을 _____.(듣다)

15. 가: 감기에 걸렸다면서요?
나: 이제는 다 _____.(낫다)

※【16~17】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교실에 ( ) 왔어요?
❶ 누가 ② 무슨 ③ 어디 ④ 무엇

16. 가: ( ) 계절을 좋아해요?
나: 가을을 좋아해요.
① 무슨 ② 무엇 ③ 누구 ④ 언제

17. 가: 그 사람은 ( ) 사람이에요?
나: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①어느 ②무슨 ③어떤 ④무엇

※【18~20】다음 밑줄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저는 어제 시장에 **갔습니다.** (가다)

18. 저는 지금 도서관에서 _____.(공부하다)
19. 저는 내일 친구를 _____. (만나다)
20. 저는 어제 학교에 가지 _____. (않다)

※【21~22】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가: 지금 어디에 가요?
나: 시장에 ( )
① 가세요 ② 갈게요 ❸ 갑니다
④ 갔습니다

21. 가: 내일 같이 산에 갈까요?
나: 좋아요. 같이 산에 ( ).
① 가겠습니다 ② 갑시다 ③ 갑니다
④ 갈 거예요

22. 가: 지금쯤 철수가 서울에 도착했을까요?
나: 출발한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쯤( ).

① 도착할게요 ② 도착하겠어요
③ 도착할 거예요 ④ 도착했을 거예요

※【23~25】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가:수업 끝나고 테니스를 칠까요?
나:오늘은 집에 일찍 () 다음에 합시다.
① 가서 ② 가면 ❸ 가니까 ④ 가지만

23. 가: 어제 친구랑 뭐 했어요?
나: 영화도 ( ) 밥도 먹었어요.
① 보고 ② 봐서 ③ 보지만 ④ 보니까

24. 가: 제가 지금 먼저 가도 될까요? 약속이 있어서요.
나: 네. 약속이 ( ) 먼저 가세요.
① 있으면 ② 있어도 ③ 있거나 ④ 있어서

25. 가:형한테 내일 같이 놀러 가자고 할까?
나:( ) 안 갈 거야. 내일 시험이 있다고 했거든.
① 물어보다시피 ② 물어보느라고
③ 물어보나 마나④ 물어볼 뿐만 아니라

※【26~28】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26. 가: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나: _____.
가: 지금은 괜찮아요?
① 친구가 왔어요. ② 너무 늦었어요.
③ 학교에 갔어요. ④ 몸이 아팠어요.

27. 가: 이렇게 직접 와 보니 정말 멋지네요.
나: 그렇죠? 저도 _____.
① 좋아해서 가 보려고요.
② 좋아하는 곳이라서 가끔 들러요.
③ 그곳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④ 그곳에 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28. 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 그 사람하고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예상외로 잘 맞더라고요.
나:그러니까 _____.
① 사람은 겪어 봐야 안다고들 하잖아요.
② 겪어봐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죠.
③ 겪어 보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④ 한 번 겪은 것으로는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하기 힘들지요.

※【29~30】 다음과 같이 써 보세요.
철수: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 철수는 꽃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29. 하영: "사랑해요"
→ _____.

30. 수영: "저 좀 도와 주세요."
→ _____.

※【31~32】 다음 빈칸에 어울리는 말을 써 보세요.

31. 가: 왜 약속시간을 바꿨어요?
나: 약속하고 보니 _____.

32. 가: 그 책에 대한 평가가 어때?
나: 이 책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_____.

※【33】 밑줄에 알맞은 말을 생각해서 써 보세요.

나는 꽃을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꽃에 물을 줍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면 _____때문입니다.

※【34~3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세요.

나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30년 경력의 아나운서가 생방송에서 외국 정치인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던 그 아나운서는 무척 당황해했다. 아나운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34. ㉠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②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④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35. ㉡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조심하지 않는 한 ② 조심하지 않아도
③ 조심하지 않길래 ④ 조심하지 않도록

서광진(Seo, Kwangjin)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화번호: 063-270-3662
전자우편: happysweat@hanmail.net

접수일자: 2013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6월 9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20일